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201>

JCCT 2023-11-25

## 유학생의 SNS 이용시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Time and Acculturation Stress of International Students

딩메이진\*, 남인용\*\*

Meijun Ding\*, Inyong Nam\*\*

**요약**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시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실증연구이다. 온라인 전문 설문조사 업체인 ‘문지위안셩(問卷星)’에 설문을 통하여 2022년 4월 1일에서 4월 12일까지 총 239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6.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Baron과 Kenny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SNS 이용시간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SNS 이용시간,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SNS 이용시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와 시사점으로, SNS를 이용한 유학생의 문화적응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SNS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문화적응 스트레스, 유학생, SNS,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Abstract**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time and acculturation stress for Chines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 to 12, 2022 on 239 Chinese students from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using Wenjuanxing questionnaire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Baron and Kenn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26.0, and bootstrapping was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s a result of the study, SNS use tim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The acculturation stres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NS use time,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SNS use tim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time and acculturation stress. Therefore, based on the above research, SNS can be used to develop the projec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enhance their cultural adaptative ability and thus alleviate the acculturation stress. This study can serve as the foundational and supplementary materials for the follow-up study of SNS and acculturation stress.

**Key words** : Acculturation Stress, International Students, SN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정희원,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제1저자)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20, 2023

\*\*정희원,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교신저자) Accepted: November 5, 2023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Corresponding Author: tarzan@pknu.ac.kr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Dept. of Media Communication, Pukyong University, Korea

## I. 서 론

법무부 출입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까지 외국인 유학생은 총 134,062명이었으며, 그중 중국인 유학생은 53,770명으로 외국인 유학생 전체의 40.1%를 차지하며 국적별 비율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점하였다[1].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학생들은 여러 나라나 지역으로 이동할 때, 각 지역의 다른 문화, 가치관 및 생활방식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유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외로움, 향수병, 우울증, 차별감 지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유발되며,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유학 생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2].

새로운 환경에 잘 녹아들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생소한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와 개인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주제성과 소속감을 재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바로 문화적응 과정이고 다문화 교류에 따른 태도, 가치관, 행위가 바뀌는 과정이다. 보통 체류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있다. 이는 바로 미디어 전파와 지역 사회활동으로, 미디어 전파는 텔레비전, 신문 및 오늘날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다[3]. Hormes는 인터넷 사용이 현실 탈피, 스트레스 및 우울증 감소 등의 이점이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SNS는 부정적 사고와 감정을 분산시키고 불안을 덜어준다고 주장하였다[4]. 적극적인 미디어의 사용은 유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5]. 특히 가족이나 지인과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유학생들은 SNS가 제공하는 심리적 공간에 의존해 정보를 추구하거나 향수병을 달래기도 한다[6].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SNS의 서로 다른 이용 동기를 비교한 결과, 중국 유학생들은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 SNS를 활용하는 반면, 중국 SNS를 활용하는 목적은 스트레스 해소, 편리성, 정보 획득, 인맥 형성 등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acculturative stress)를 해소하는 매체인 SNS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SNS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접근의 용이성, 저렴한

비용, 사용의 편의성, 제약 없는 의사소통의 가능성 등의 이점을 갖고 있어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와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은 SNS 이용이 문화적 스트레스 감소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SNS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지지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다[8][9].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효능감을 창조하고 강화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서적 행복을 실현하는 기초이다[10].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문제가 낮아지고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학업 스트레스도 줄어들어, 이탈 행동의 빈도가 낮아진다[11].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SNS 이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두 변수 사이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SNS를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유학생의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및 문화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개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규정했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이민자들은 익숙한 곳을 떠나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이민자들은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존재체계를 상실하고 스스로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12].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세 가지 요인으로 정의된다. 첫째,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무기력, 짜증 등 다양한 증상과 관련된 심리적 갈등과 사회적 심리적 기능의 저하이다[13]. 둘째,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표출하는 혐오감이나 이주문화에서 느끼는 거부감과 차별감이다.

마지막 증상은 향수병과 관련되어, 슬픔과 상실감,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14].

## 2. SNS 이용시간

SNS 이용시간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SNS 중독 경향성이나 중독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다.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에서는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K-척도)를 SNS 이용에 맞게 수정해 1일 이용량의 구분을 30분 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으로 나눠 연구했다[1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SNS의 이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1일 이용시간을 측정하여 이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에서 개인과 행위를 매개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과제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 과정을 구성·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뜻한다[16]. 자신이 의도한 수준의 학습이나 수행을 해내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17],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을 말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차 변인으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수행수준을 안정적으로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제공 받는 언어, 비언어적 정보나 충고, 유형적 도움이나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지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적 특징과 개인과 연결된 관계망을 의미하는 구조적 특징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18]. 즉,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긍정적 지지로 본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국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인 '문지위안썹(問卷星)'을 통하여 2022년 4월1일에서 4월12일 까지 부산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42부의 설문자료가 수집되었으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3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측정도구

### 1) SNS 이용시간

SNS 이용시간은 선행연구중 양혜승 외가 연구 개발한 '페이스북 읽기' 측정 방법을 신미정 외는 측정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양한 SNS 이용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SNS에서 다른 사람이 올려놓는 내용을 읽는 행위 피드에 직접 방문하여 내용을 읽는 행위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을 측정하였다[19]. SNS 이용시간을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30min 이하'=1, '30min 이상~1h 이하'=2, '1h 이상~2h 이하'=3, '2h 이상~3h 이하'=4, '3h 이상'=5)[20].

### 2) 문화적응 스트레스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Sandhu 외가 개발하고 이승종이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21][22]. 황지인은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연구하기 위해 인종 피부색 관련 세 가지 문항을 삭제했고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3]. 총 33개 문항(Cronbach's  $\alpha$ =.948)을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 3) 자기효능감

자기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Schwarzer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채식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4][25].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은 총 7개 문항(Cronbach's  $\alpha$ =.87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다.

###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외가 개발한 척도를 길귀숙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인 친구 지지, 가족 지지, 의미 있는 타자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26][27], 총 12문항(Cronbach's  $\alpha$ =.921)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SNS의 이용시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SNS 이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Baron과 Kenny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odel 4를 활용한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9)

Chara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14	47.7
	Female	125	52.3
Age (year)	≤19	38	15.9
	20-25	80	33.5
	25-30	75	31.4
	≥30	46	19.2
Topik	<3	3	1.3
	3	7	2.9
	4	81	33.9
	5	99	41.4
	6	49	20.5
Education	Language lesson	19	7.9
	Bachelor	97	40.6
	Master	92	38.5
	Doctor	31	13

표 1에서 보듯이, ‘남학생’ 114명(47.7%), ‘여학생’ 125명(52.3%)이었고, 연령은 ‘20-25세’가 80명(33.5%), ‘25-30세’가 75명(31.4%), ‘30세 이상’ 46명(19.2%), ‘19세 미만’ 38명(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등급은 ‘5급’이 99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4급’ 81명(33.9%), ‘6급’ 49명(20.5%), ‘3급’ 7명(2.9%), ‘3급이하’ 3명(1.3%)이었고 수업 과정은 ‘어학당’ 19명(7.9%), ‘학부생’ 97명(40.6%), ‘석사과정’ 92명(38.5%), ‘박사과정’ 31명(13%)으로 나타났다.

#####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표 2에서 보듯이, SNS 이용시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변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었다. SNS 이용시간은 사회적 지지( $r=.218, p<.01$ ), 자기효능감( $r=-.370, p<.01$ ) 간에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r=-.418, p<.01$ )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 $r=.775, p<.01$ )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r=-.680, p<.01$ )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r=-.516, p<.01$ )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39)

	SNS Use Time	Acculturat ion Stress	Social Support	Self- efficacy
SNS Use Time	1			
Acculturat ion Stress	-.418**	1		
Social Support	.218**	-.680**	1	
Self- efficacy	.370**	-.516**	.775**	1
M	3.66	3.70	3.76	4.10
SD	0.87	0.53	0.65	0.44

\* $p<0.05$ , \*\* $p< 0.01$

##### 3. 매개효과 검증

###### 1)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3에서 보듯이, SNS 이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27.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31.144, p<.001$ ). 즉, SNS의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t=-6.648, p<.001$ ).

2단계는 SNS 이용시간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27.2%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30.662, p<.001$ ). 즉, SNS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5.64, p<.001$ ).

3단계는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35.4%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33.568, p<.001$ ).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t = -5.432, p < .001$ ). SNS 이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 $t = -4.731,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표 3. SNS 이용시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time and acculturation stress

model						
Dependent variable: Acculturation Stress		B	SE	$\beta$	t	VIF
constant term		5.55	.199		27.877***	
Independent variable	SNS Use Time	-.277	.034	-.371	-6.648***	1.021
R <sup>2</sup>		.275				
F		31.144				
mode 2						
Dependent variable: Self-efficacy		B	SE	$\beta$	t	VIF
constant term		2.558	.164		15.558***	
Independent variable	SNS Use Time	.159	.028	.315	5.64***	1.021
R <sup>2</sup>		.272				
F		30.662				
mode 3						
Dependent variable: Acculturation Stress		B	SE	$\beta$	t	VIF
constant term		6.586	.268		24.595***	
Independent variable	SNS Use Time	-.163	.034	-.265	-4.731***	1.159
mediation variable	Self-efficacy	-.405	.075	-.334	-5.432***	1.391
R <sup>2</sup>		.354				
F		33.568				

\* $P < .05$ , \*\* $P < .01$ , \*\*\* $P < .001$

마지막으로, 표 4에서 보듯이, SPSS Process Model 4를 활용한 검증 결과는 총효과 -0.2560, 직접효과 -0.1611, 간접효과 -0.0949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구간에서 상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NS 이용시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역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트스트래핑  
 Table 4. Bootstrapping

	Effect	boot SE	LLCI	ULCI
Total effect	-0.2560	0.0361	-0.3271	-0.1848
Direct effect	-0.1611	0.0352	-0.2305	-0.0918
Indirect effect	-0.0949	0.0247	-0.1507	-0.0525

2)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표 5에서 보듯이, SNS 이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27.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 = 31.14, p < .001$ ). 즉, SNS의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 $t = -6.648, p < .001$ ).

2단계는 SNS 이용시간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28.1%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 = 32.075, p < .001$ ). 즉, 유학생의 SNS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654, p < .001$ ).

3단계는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53.4%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 = 69.29, p < .001$ ).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11.478, p < .001$ ). SNS 이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 $t = -6.214,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표 5. SNS 이용시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time and acculturation stress

model						
Dependent variable: Acculturation Stress		B	SE	$\beta$	t	VIF
constant term		5.55	.199		27.877***	
Independent variable	SNS Use Time	-.277	.034	-.371	-6.648***	1.021
R <sup>2</sup>		.275				
F		31.144				

mode 2						
Dependent variable: Social Support		B	SE	$\beta$	t	VIF
constant term		1.49	.242		6.158***	
Independent variable	SNS Use Time	.110	.041	.147	2.654***	1.021
R <sup>2</sup>		.281				
F		32.075				
mode 3						
Dependent variable: Acculturation Stress		B	SE	$\beta$	t	VIF
constant term		6.286	.172		36.561***	
Independent variable	SNS Use Time	-.173	.028	-.282	-6.214***	1.051
mediation variable	Social Support	-.494	.043	-.603	-11.478***	1.409
R <sup>2</sup>		.534				
F		69.290				

\*P<0.05, \*\*P< 0.01,\*\*\*P< 0.001

마지막으로, 표 6에서 보듯이, SPSS Process Model 4를 활용한 검증 결과는 총효과 -0.2560, 직접효과 -0.1734, 간접효과 -0.0826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구간에서 상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NS 이용시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역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트스트래핑  
Table 6. Bootstrapping

	Effect	boot SE	LLCI	ULCI
Total effect	-0.2560	0.0361	-0.3271	-0.1848
Direct effect	-0.1734	0.0278	-0.2280	-0.1187
Indirect effect	-0.0826	0.0250	-0.1336	-0.0356

## V. 논의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시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중국 유학생의 SNS 이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beta=-0.371$ )에 현저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SNS의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차별감이나 두려움, 향수병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SNS가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7]. SNS는 물질적 지지나 정신적 지지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일부 부정적인 감정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조절 역할을 한다. SNS는 시간, 공간, 언어의 경계를 허물고 유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유학생들이 지역 주민과 학교 학생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어지자 그들은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 데 더욱 SNS에 의존하게 되었다.

둘째, 유학생의 SNS 이용시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SNS 이용시간이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낮아질 수 있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윤희의 연구도 SNS 활용 정도가 자기효능감과 같은 매개변수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서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28], 이는 이숙정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 내적 요소의 매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9]. 즉,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폐쇄 대응 방안에서 자기효능감은 고려할만한 변수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원만한 태도를 보이며 타인과의 친근하게 교류하기 때문이다.

셋째,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현저한 정적인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는 Jin의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SNS 사용은 중국인과 한국인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한국인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를 뒷받침한다[30]. 즉, 중국 유학생의 SNS 이용시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유학생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학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원활한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SNS를 활용하여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SNS 활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다문화 전파를 위해 재한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부산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에 한해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전체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표하는 연구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한국에 있는 전체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으면 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al Monthly Report on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pp.770, December 2022.
- [2] S. I. Moon, J. Liu, H. J. Lee and K. T. Kim, "Predicting Acculturation fo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Role of Social Support through SN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1 pp.722-732. January. 2021.
- [3] C. L. Williams and J. W. Berry.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Vol.46. No.6. pp.632 - 641. 1991.
- [4] J. M. Hormes, B. Kearns and C. A. Timko, "Craving Facebook Behavioral addiction to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its association with emotion regulation deficits". *Addiction*, Vol.109. No.12, pp. 2079-2088. 2014.
- [5] J. S. Bae. "A Study of Social Networks among Korean Student Return Migrants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DIASPORA Studies*. Vol.12 No.1 pp.175-212. 2018.
- [6] J. Y Kim "A study of media dependency theory: The relationship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et use, national identity, information needs, media dependency, and cognitive and behavioral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3, No.2, pp.119- 154. 2003.
- [7] Y. L. Jin and X. Wang, "Acculturative Stress and The Use of SNS: Focused on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Vol.24, No.4, 2013.
- [8] S. K. Kim and K. M. Yang, "The Study on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ego-resiliency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11, pp147-176, 2012.
- [9] E. G. Kim and J. N. Nam, "The relationships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ulturation stres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9, No.4, 2016.
- [10] J. A. Kim, "Effects of Nursing Education using a TBL on Self efficacy and Self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5 No.2 pp.26-43. 2017.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17.5.2.26>
- [11] G. S. Lee, "A study on the stress betwee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incarcerated adolescents : focu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life-satisfaction, delinquent-behavior". master's thesis at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0.
- [12] J. W. Berry and U. Kim,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Immigration Review*, Vol.21, pp.491-511. 1987.
- [13] A. O. Miranda and K. B. Matheny, "Socio-psychological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Latino adult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Vol.22. No.4, pp.306-317. 2000.
- [14] E. Tartakovsky, "A longitudinal study of acculturative stress and homesickness: High-school adolescents immigrating from Russia and Ukraine to Israel without par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42. No.6. pp.485-494. 2007.
- [15] Y. K. Oh,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Lonelines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at Counseli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2.

- [16]A. Bandur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ill*. 1986.
- [17]D. H. Schunk,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Vol.26, No.3&4, pp.207-231, 1991.
- [18]S. Cohen and H.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No.2 pp.99-125. 1983.
- [19]H. S. Yang, J. H. Kim and M. H. Seo, "Does Facebook Enrich Our Social Relations? :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Psychological Motivation, Facebook Use Behavior,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56, No.5, pp.270-297, 2012.
- [20]M. J. Sin, H. H. Pyeon, H. J. Kim and J. H. Mo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dy image,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SNS use tim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5, No. 1, pp.257-264, February 28, 2019.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257>
- [21]D. S. Sandhu and B. R. Asrabadi,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Vol.75, No.1, pp.435- 448. 1994.
- [22]S. J. Lee "betwee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Belief System,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Student" *The Journal of Yonsei Educational Research* No.9, pp.157-176, 1996.
- [23]J. I. Huang.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djustment Stress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master's thesis at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8.
- [24]L. M. Scheier, G. J. Botvin, K. W. Griffin and T. Diaz "Social Skills, Competence, and Drug Refusal Efficacy as Predictors of Adolescent Alcohol Use." *Journal Of Drug Education*, Vol.29, No.3, pp.251-279, 1999.
- [25]J. S. Lee, "A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youth leadership skill" doctor's the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5.
- [26]G. D. Zimet, S. S. Powell, G. K. Farley, S. Werkman and K. A. Berkoff,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5, No.3, pp.610 -617, 1990.
- [27]G. S. Gil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chronic illness", doctor's thesis at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3.
- [28]Y. H. Chey and J. K.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ve SNS Usage of Smart Device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7, No.2, pp.165-176. 2018.
- [29]S. J. Lee and J. H. Yu,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2, No.3, 2008.
- [30]X. M. JIN, "The effect of Chinese students' SNS usage on acculturation stress :focus on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master's thesis at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9.